

MLB 최다 퇴장 1·2위 감독, 같은 경기서 퇴장



▲ 같은 경기에서 차례로 퇴장 당한 에런 본 뉴욕 양키스 감독 (왼쪽 사진)과 데이비드 벨 신시내티 감독. 사진=AP/연합뉴스

바우어스는 파울 라인에서 슬라이딩 캐치를 시도했으나 공을 놓쳤다. 이 순간 신시내티 1루주자는 홈까지 뛰고 있었으나 바우어스는 1루심이 파울 선언을 함에 따라 송구하지 않았다.

그러나 신시내티 벤치가 비디오 판독을 요청한 결과 2루타로 번복되며 득점이 인정됐다. 이에 본 양키스 감독은 뛰어나와 거칠게 항의하다 퇴장당했다. 메이저리그에서는 비디오 판독 결과에 항의하면 자동 퇴장당한다.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에서 양 팀 감독이 차례로 퇴장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에런 본 뉴욕 양키스 감독은 전날 오키와주 신시내티 그레이트 아메리칸 볼파크에서 열린 신시내티 레드와 방문경기를 시작하자마자 퇴장당했다.

신시내티는 1회말 2사 1루에서 스펜서 스티어가 우익 선상에 떨어지는 타구를 날렸다. 양키스 우익수 제이크

본 감독은 개인 통산 29번째 퇴장을 당했다.

양키스는 감독이 자리를 비웠지만 5회 초 4-1로 역전했다. 그러자 데이비드 벨 신시내티 감독이 심판에게 항의했다. 벨 감독은 8회말 양키스 투수 완디 페랄타의 투구 동작을 문제 삼으며 심판에게 거칠게 항의하다 퇴장 명령을 받았다.

ESPN에 따르면 본 감독은 최근 3년간 18번, 벨 감독은 12번 퇴장당해 메이저리그 1.2위에 올라 있다.

LIV 선수 켈카, PGA 재패했다



▲ 2023년 PGA 챔피언십 우승을 차지한 브룩스 켈카. 사진=AFPBBNews

LIV 골프 소속 선수가 처음으로 PGA 챔피언십을 석권했다. 그 주인공은 브룩스 켈카(33·미국)다.

지난 22일 '파이낸셜뉴스'에 따르면 켈카는 전날 뉴욕주 로체스터의 오클 힐 컨트리클럽(파 70·7천380야드)에서 열린 PGA 챔피언십(총상금 1천750만 달러)에서 최종 합계 9언더파 271타로 우승을 차지했다. 우승 상금은 315만 달러이다.

이번 우승으로 켈카는 PGA 투어 통산 9번째 우승을 수확했다. 지난해 6월 LIV 골프로 이적한 켈카가 PGA 투어 대회에서 우승한 건 2021년 2월 피닉스오픈 이후 2년 3개월 만이다. 특히 켈카는 메이저대회에서만 5승째를 올렸고, 그중 PGA 챔피언십에서 3승(2018, 2019, 2023년)을 거두었다. '메이저대회 5승 이상'은 켈카를 포함해 역대 20명만 지닌 대기록이다.

켈카의 이번 우승은 지난해 출범한 LIV 골프 소속 선수로는 메이저대회에서 우승한 최초의 사례이다. LIV 골프는 출범한 이후 PGA 투어와 대립각을 드러내고 있으며 소속 선수가 앞선 세 차례 PGA 메이저대회에서는 우승한 적이 없다.

투어 선수가 아닌 클럽 프로 마이클 블록(미국)은 공동 15위(오버파 281타)에 오르는 선전으로 내년 PGA 챔피언십에도 출전할 수 있게 됐다. 이번 대회 가장 화제를 모은 참가자이기도 하다.

호날두 "사우디 리그, 세계 '5대 리그' 진입할 것"

현재 영향력과 팬들을 봤을 때 세계 축구 '5대 리그'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스페인 프리메라리가(라리가), 이탈리아 세리에A, 독일 분데스리가, 그리고 프랑스 리그1으로 평가된다. 모두 유럽 리그이다.

그런데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알 나스르)가 5대 리그의 판도가 앞으로 바뀔 수 있다고 전망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EPL(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라리가(레알 마드리드), 세리에A(이탈리아)에서 뛰어본 경험이 있다. 지금은 사우디아라비아 리그에서 활약하고 있다.

호날두는 지난해 말 세계 최고 연봉인 2억 유로(약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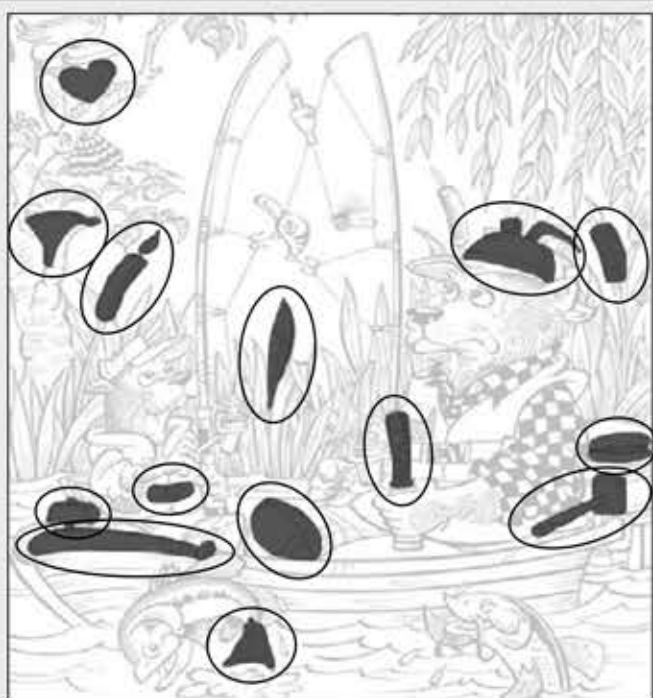
▲ 사우디아라비아 리그 알 나스르 소속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사진=미르카 SNS

억 1,500만 달러)의 연봉을 기록하며 알 나스르 유니폼을 입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호날두 외에도 세계 최고의 스타들을 모을 준비를 하고 있다. 최근 사우디아라비아의 알 힐랄이 리오넬 메시(파리 생제르맹)에게 호날두 연봉의 2배를 제시한 바 있다.

호날두는 "사우디아라비아 리그는 점점 더 발전하고 있다. 내년은 올해보다 훨씬 더 성장할 것이다. 단계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 리그가 세계 5대 리그에 속할 거라고 생각한다. 이

나라는 놀라운 잠재력을 가지고 있고, 놀라운 팬들의 지지가 있고, 훌륭한 리그를 가지고 있다. 앞으로 시건 선수, 인프라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숨은그림찾기 정답



숫자퍼즐 정답

7	9	2	3	5	4	8	1	6
1	3	5	8	9	6	2	4	7
4	6	8	7	1	2	3	5	9
5	7	6	9	2	8	4	3	1
2	8	1	6	4	3	7	9	5
3	4	9	5	7	1	6	8	2
6	5	3	1	8	7	9	2	4
8	1	4	2	6	9	5	7	3
9	2	7	4	3	5	1	6	8